남원공공산후조리원 조성 착공식

2025년까지 총사업비 116억원 투입 전문적 산후돌봄 시스템 구축

남원시는 지난 23일, 출산과 산후조리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남원공공산후조리원 조성을 위한 착공식을 가졌다.

남원시는 지난 23일, 출산과 산후조리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남원공공산후조리원 조성을 위한 착공식을 가졌다.

착공식에는 최경식 남원시장,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 김영태 시의장, 임종명 도의원 및 시의원과 기관장 등 지역 주요 인사와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다.

그동안 전북 동부권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어 임산부들이 대도시로 원정 출산을 가야 하는 불편함이 지속돼 왔으며, 이에 남원시는 지난 2023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자해 부지 확보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6월 설계를 완료하고, 이날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갔다.

이번 착공으로 민선8기 남원시장의 공약사항인 공공산후조리원은 오는 2025년까지 남원시 고죽동 200-4 일원에 총사업비 116억원(기금 42억, 도비 35억, 시비 39억)을 투입해 연면적 2,400㎡,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2025년 상반기까지 13개의 모자동실과 신생아실, 사전관찰실, 모유수유실 등 전문적인 산후돌봄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특히 이 시설은 '산후케어센터 다온'이라는 시설명을 갖고, 단순한 산후조리를 넘어 맘카페, 마사지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실과 자연친화적인 실내외 정원을 마련해 휴식과 힐링이 가능한 리조트 개념의 공간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현재 도내 산후조리원은 민간에서 전주시에 8곳, 군산시에 2곳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남원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기간은 2주까지 가능하며 기본 이용료는 민간 시설보다 저렴하게 책정될 예정이고, 특히 취약계층, 시민, 도민, 지리산권 주민 및 시민 자녀에게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적용하도록 검토 중이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공공산후조리원을 수도권 지역의 민간 산후조리원 못지않은 최신 시설로 갖춰 원정 출산을 막고 도내 동부권뿐만 아니라 지리산권 시군과 연계, 출산부터 산후조리까지 산모와 신생아 돌봄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이를 위해 올 하반기까지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원광대, 글로컬대학 사업 성공 추진 '맞손'

지역혁신 공동 발전 도모

남원시와 원광대학교는 지난 23일,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자체와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최경식 남원시장과 원광대학교 박성태 총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 글로컬대학30을 추진하기 위한 '생명산업의 글로벌 거점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남원시와 원광대가 동반성장 모델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 방안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농생명 바이오 산업 및 화이트 바이오 산업 육성 △생명산업 연계 공동사업 발굴 및 상생협력 △문화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지속가능한 미래 복지교육 및 혁신행정 모델 구축 △지역 정책연구 및 국책사업 발굴, 인재양성 등으로 글로컬대학30 연계 지역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한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래 농생명바이오사업과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의 연구개발 기술자원을 기반으로 글로컬대학 본지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조사료 수확 농작업 대행단 운영 총력

임실군이 사료 가격 폭등 및 한우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 지원 대책 일환으로 조사료 수확 농작업 대행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22일 하계 조사료 수확 대행 사전설명회를 통해 축산농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했다.

당초 곤포사일리지(사료작물을 곤포에 밀봉 저장 후 발효시킨 것) 한 롤당 1만원의 농작업 대행료를 책정·징수하기로 했으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 조사료 농작업 대행료를 전액 무료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군의 하계 조사료 수확 농작업 대행단은 2016년부터 추진하여 대행 첫해 43ha에서 지난해 84ha까지 수확 면적을 확대하여 조사료 생산 농가 및 축산농가에 큰 힘이 됐다.

올해 농작업 대행단은 3개 조 8명으로 편성되어 7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운영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심민 임실군수가 국회를 방문해 주요 사업의 국가예산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왼쪽 시계방향으로 박희승 의원, 김윤덕 의원, 안호영 의원, 이춘석 의원)

심민 임실군수, 현안 해결 총력

국회 찾아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만나 국가예산확보 지원 요청

심민 임실군수가 국회를 방문해 주요 사업의 국가예산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심민 군수는 지난 23일 국회를 찾아 박희승 의원, 안호영 의원, 김윤덕 의원, 이춘석 의원 등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임실군이 당면한 주요 현안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건의 사업으로는 △옥정호 붕어섬 에코브릿지 조성(180억원) △옥정호 자라섬 에코힐링랜드 조성(150억원) △운암 생태공원 조성(50억원) △옥정호 순환도로 개설(620억원) △국지도 49호선 선형개량(신덕~신평) (495억원) △전라선 철도 KTX 임실역 정차(45억원) △임실 정주활력복합센터 건립(45억원)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분 지원(동향)을 부처별 소관 위원회 의원에게 설명했다.

심 군수는 옥정호 붕어섬 에코브릿지 조성의 타당성을 설명하며, 붕어섬 주변의 관광 자원 간 연계벨트를 구축하고, 붕어섬 내 화재, 안전사고 발생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교량 확충이 필요한 만큼 국가하천기본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또한, 붕어섬의 성공 사례를 연계한 옥정호 자라섬(90,000㎡) 개발로 더 많은 관광수요에 대비하고, 볼거리 확충을 위해 옥정호 자라섬 에코힐링랜드 사업을 건의했다.

특히 심 군수는 "지난 2012년 개통한 전라선 KTX는 해당 구간 노선 9개 역 중 임실역만 유일하게 정차하지 않아 KTX 정차가 시급하다"며 "35사단과 임실 국립호국원 등의 방문객과 관광개발을 통한 관광객 등 2018년도 498만명의 생활인구가 작년 852만명으로 71% 급증하여 철도 이용 수요가 확보되었고, KTX가 정차하면 더 많은 생활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접근성 개선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히 KTX가 정차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민 군수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국가예산확보가 녹록지 않고, 국가경제 또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군정 발전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여름철 아동 물놀이장 무료 개장

순창군이 여름철 아동 물놀이장을 향토회관 야외무대 광장에서 11일간 무료로 개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개장한 이 시설은 여름 휴가철에 멀리 갈 필요 없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유쾌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힐링 쉼터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물놀이장은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이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단순한 물놀이 공간을 넘어 여름 축제 장소로 거듭날 전망이다.

물놀이장에는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에어 풀장, 워터슬라이드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과 그늘막 쉼터, 탈의실 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보호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 기간은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총 11일간이며, 수질 관리를 위해 월요일과 목요일은 휴장한다.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에는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되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편의를 고려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26일 '사랑의 헌혈' 실시

남원시에서는 지역 헌혈문화 확산과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시청 광장, 농업기술센터(오전), 보건소(오후) 등지에서 '사랑의 헌혈'을 실시한다.

전북혈액원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사랑의 헌혈'은 혈액 수급 비상상황을 극복하고 고귀한 생명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남원시는 분기별 사랑의 헌혈을 실시하고 있으며, 헌혈 권장을 위해 참여 시민에게 남원사랑상품권 2만원을 제공하고 있고, 공무원, 남원라이온스클럽 회원 등 봉사단체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생명 나눔과 이웃사랑을 실천 중이다.

특히 전북혈액원은 공직자와 시민 등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와 채혈기구를 철저히 소독하고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감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장마철 도로 정비 작업 구슬땀

임실군이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변에 쓰러진 나무 및 토사 유출로 통행이 불편한 도로에 대해서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 위 수목 제거, 배수로 정비 등 도로 정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또한 도로 위 포트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조치함으로써 각종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름철 도로변 주변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 및 넝쿨류, 시야를 방해하는 나뭇가지 등을 제거하기 위해 도로변 풀베기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풀베기 작업은 장비를 동원하여 118개 노선 770㎞에 대해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환경정비를 통해 깨끗한 임실군 이미지 제고에 앞장설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장마철 도로 위 위험 요소 제거 및 풀베기 작업을 통해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